

NEWS

2025년 3월 5일 수요일

광주시-한국경제인협회, 지역경제 살리기 '맞손'

美, 캐나다·멕시코 25%관세 트러플, 내달 2일부터 농산품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4일(미국 동부시간)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 (지난달 부과한 10%에 새롭게 추가) 세율로 적용되는 미국의 신규 관세는 이날 오전 0시11분을 기해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류 단속을 포함한 국경 안보 강화 문제와 연계한 이번 관세 부과는 북미 3국 간 '관세 전쟁'의 서막이자,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은 미중 간 제2차 무역전쟁 본격화 계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3일 오후 서명됐다.

이번 관세로 인해 미국보다 생산원가가 저렴한 멕시코에 진출한 뒤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이용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온 한국 기업들도 일정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4월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찾아가는 소망버스' 운영 소상공인 경영자문 상담

무등시장에 3000만원 전담 전통시장 편의시설 개선

광주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4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및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와 함께 '광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상담회 찾아가는 소망버스' 및 '전통시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부회장 및 경영자문단, 김병내 남구청장, 지역 소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 금호타이어, 경제계 간담회 등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도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상담회 '찾아가는 소망버스' 행사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자문위원단 등이 소망버스를 배정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영상담회 찾아가는 소망버스'에서 경영자문단은 지역 소상공인 7개사, 중소기업 33개사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진행했다. 경영자문단은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주요 그룹 전직 CEO 및 임원과 현지 법률·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경영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경영전략, 인사·노무, 기술·생산·품질, 판로·마케팅 등 분야별 자문신청서를 미리 작성하

고 현장에서 경영 애로사항을 직접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또한 전통시장 나눔 실천을 위해 노후화된 물반이 배관 및 고객 화장실 공사 등 무등시장인회에 300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한 한국경제인협회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지역 내 창업자 대상 창업교육과 아이디어 사업화, 저출생 위기극복 사업 추진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요즘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소망버스를 통해 도

움이 되고자 한결같은 달려왔다"며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경제 발전과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마련하는 일에 함께 나서준 한국경제인협회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면 '새마을금고'서 계속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의 지역 금고는 이사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의무화했고 2000억원 이하인 곳은 기존대로 직·간선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투표시간은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대의원회를 개최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관할 구·군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인은 주민등록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이사장선거부체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시설원에 생산기반 확충 505억 투입

스마트팜 온실신축·시설원에 현대화 등 14개 사업 추진

전남도는 올해 시설원에 분야에서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14개 사업에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50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 온실 신축, 시설원에 현대화, ICT융복합,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

성,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원예단지 기반 조성 지원 등 7개 사업에 265억을 지원한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 및 저탄소 농업 전환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바이오-차 보급,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시설원에 생산비 절감 지원, 살

균수 공급장치 지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에 총 240억원이 지원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기존 시설하우스의 현대화와 스마트팜 전환,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농업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스마트팜 기반구축 등 다양한 혁신 사업 운영을 통해 첨단 농업기술의 확산을 가속화해 전남 농업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이현구 기자 gnnews1@

보험사기 등 물의...광주시 공무원들 적발

주거침입, 무단방뇨, 보험사기 등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징계받게 됐다.

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복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는 등 여러 차

례 무단 침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다.

B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편의점 카운터 옆 사무실 안으로 무단 침입해 술에 취해 방뇨했다.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피소됐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처분을 받았다.

C씨는 2023년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서 입원한 뒤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간병비 보험금 6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읍주운전, 출·퇴근 시간 대리 임의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등을 함께 적발해 총 14명에 걸쳐 징계 13건, 주의 1건 처분을 내리도록 시에 요구했다. 정승기 기자 sky@

전남도, 지역 독립운동 역사서 만든다

편찬용역착수보고, 전문가 자문·학술대회 등 체계 정리

전남도가 1894년 2차 동학농민운동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전남에서 펼쳐진 독립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역사서 발간에 나선다.

전남도는 4일 도청 영약실에서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집필 전략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신민호 의원과 송인정 광복회 전남도지부장, 대학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석했다.

용역은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2027년까지 3년 동안 의병항쟁, 3·1운동, 학생운동, 농민·노동·사회운동, 국의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인명부, 독립운동 사적지 등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사 왜곡, 식민사관 등의 논란을 없애고 완성도 높은 독립운동사 발간을 위해 호남사학회, 대학 교수 등 지역 전문가와 함께 자문회의,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집필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광역 최초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사업

을 추진해 지역의 항일투쟁 기록을 찾아내고,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발굴했다.

전남독립운동사 편찬은 이같은 발굴 성과를 토대로 전남의 독립운동을 기록하고 의향 전남의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해 시작했다.

전남도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한 결과 지금까지 2584명의 독립운동 활동자료를 찾아 지난해 4월까지 국가보훈부에 1천103명을 서훈 신청해 19명이 서훈을 받았다.

독립운동사를 편찬하는 3년 동안 국가보훈부에 추가로 서훈이 확정되는 독립운동가의 활동도 포함해 편찬할 계획이다.

명장환 부지사는 "전남은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로 수많은 민중이 일제에 맞서 3·1운동, 학생운동 등을 치열하게 전개했으나, 이를 정리한 자료가 없어 안타까웠다"며 "전남독립운동사를 잘 편찬해 의향 전남을 알리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허어로 슈퍼재과 함께할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키즈라라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 즐거운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항공훈련센터·뷰티살롱 등
- 미디어로 소통하는 TV 방송국·1인 방송국 등
-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공룡연구소·AI 로봇연구소 등
-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쿠키·치즈공방·식품연구소 등
-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경찰서 등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35 **T. 1600-7953**